

■ 8·29부동산대책 발표 지역 반응

수도권만 혜택... 지방 효과 '미미'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아파트 사업에 진출한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수 업체들이 수도권 미분양 사태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 주택건설업체는 이번 대책이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지방 미분양 해소와 지역 주택경기 선순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누락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업계의 숙원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업체들은 입을 모은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중견 건설업체들이 수도권 아파트 사업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대책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9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한시적 유예 ▲ 다주택 양도세 종과 완화 및 취득·등록세 감면 1년 연장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자금지

원 등 ▲ 건설사 유동성 지원 방안 등이기 때문이다.

DTI규제완화 대상도 '무주택, 1주택 보유자'로 확대되는 등 폭이 넓어져 수도권 부동산 거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역 주택경기 선순환·미분양 해소 대책 없어

미분양 허덕 수도권 진출 지역 업체엔 '긍정적'

건설업체 숙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수용안돼

그러나 이번 대책이 지방미분양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DTI 규제 자체가 수도권 집값 폭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투기 수요가 없는 지방에는 이 비율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미분양 해소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의 경우 6월 말 현재 2822건, 전남도는 현재 3397건으로 아직 적

때문에 당장 거래가 활성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 주택경기 침체의 원인인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수도권과 차별화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도 "총부채상환비율 한시적 유예 조치 등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방 주택경기가 선순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

또 정부대책에 포함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주택보증의 확대 조 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도 4·23 부동산 대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전언이다.

중소형 민영임대 주택 공급 등 서민들의 주택 구입난을 덜어줄 대책이 없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수도권 미분양을 고려한 것으로, 사실상 지방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규제를 늘려 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 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중소기업 민영임대 주택 공급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이번 대책의 한 계로 거론된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축구장 3배 크기 컨테이너선 현대상선중공업이 30일 세계 최대급 컨테이너선을 진수했다. 이날 첫선을 보인 선박은 1만3100 TEU급(길이 366m, 폭 48.2m)으로, 25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다. 국제 규격 축구장의 3배 크기이며 배를 일으켜 세우면 63빌딩보다 102m가 더 높다. /연합뉴스

중소 부실채권 15조8천억 '빨간불'

부실률 3.04% ... 통계 공표 7년래 최고

10월말 구조조정 추가 부실 증가 우려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실채권 비율이 통계 공표 이래 최고치로 치솟는 등 중소기업의 부실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경기회복의 온기가 아직은 중소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10월말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회오리까지 예고돼 있어 부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 여신/총여신)은 3.04%로 3월말 2.19%보다 0.85%포인트 올라갔다.

중소기업의 부실채권은 2009년 9월말 2.39%로 소폭 줄어든 뒤 12월에는 1.8%까지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 1.2분기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실채권 규모도 2008년 9월말 6조7000억원에서 작년말 9조3000억원, 올해 3월말 11조2000억원으로 상승하더니 6월말에는 15조8000억원까지 늘었다.

중소기업의 신규 부실채권액은 8조5000억원으로 대기업의 2.6배 수준에 달했다.

채권이 연세적으로 부실화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지표상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 등 중소기업에 불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대기업의 이익이 100%라고 할 때 중소기업의 이익은 10~2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내수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은 경기회복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분석이다.

중앙회가 집계하는 8월 중소기업의 업황전망건강도지수는 92.8로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금융권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돼 있어 부실 증가가 우려된다. /연합뉴스

포스코, 대우인터 3조3724억에 인수

대우인터내셔널이 옛 ㈜대우가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른 지 10년여 만에 포스코로 넘어갔다.

대우인터내셔널 공동매각협의회의 대표인 자산관리공사(캠코)는 30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다리아몬드홀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 총발행 주식 수의 약 68%인 6868만1566주를 3조3724억원에 인수한다. 최종 매각대금은 포스코가 당초 제시한 입찰대금 3조4602억원에서 878억원(2.54%)가량 떨어졌다. 포스코가 9월 말까지 잔금을 내면 대우인터내셔널 매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이번 매각으로 대우인터내셔널 지분 35.5%를 보유한 캠코의 공적자금 회수금액은 1조7579억원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은 1999년 위크아

웃(기업개선작업)을 개시한 옛 ㈜대우가 2000년 회사 분할 과정에서 무역부문만 떼어내 설립된 회사로, 2003년 말 위크아웃을 졸업했다. 채권단은 2003년 대우인터내셔널 출자 지분 공동매각협의회를 구성하고서 작년 9월부터 매각을 추진해왔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760.13 (+30.57)
▲ 코스닥지수	466.09 (+4.57)
▲ 금리 (국고채 3년)	3.58% (+0.02)
▲ 원·달러 환율	1,192.00원 (-4.6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호남석화, 탄소복합재료업체 데크항공 경영권 확보

롯데그룹 화학부문 계열사 호남석유화학은 30일 탄소복합재료 전문기업 데크항공의 대주인 ㈜데크와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호남석유화학은 이에 따라 데크항공의 주식 50%+1주를 인수, 경영권을 확보했다.

호남석유화학은 ㈜데크와 이 회사를 공동운영, 탄소복합재 사업에서 앞으로 5년 안에 매출 2000억원 이상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데크항공은 보잉사의 신형 기종인 B-787과 브라질 항공사 엠브라에르의 페놈100 기종에 항공기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다. /연합뉴스

7월 중소기업 가동률 72.4%...전월비 0.3%P 하락

중소제조업체들의 가동률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417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의 평균 가동률은 72.4%로, 6월보다 0.3% 포인트 떨어졌다.

조사 대상 업체들의 평균 가동률은 지난 4월 연중 최고치인 72.8%를 기록한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지난

달 하락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건설 경기가 위축된 데다 내수 경기가 부진하고 계절적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이 가동률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의 가동률이 0.6% 포인트 하락한 70.2%를 기록했고 중기업의 가동률은 전월과 비슷한 77.0%였다. /연합뉴스

지자체끼리 손잡고 산업·연구기능 발전 도모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지원

지경부, 204곳 530억 투입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손잡고 지역 산업과 연구기능 발전 등을 도모하는 이른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시작됐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이 사업의 수행

주체 선정에 대한 위원회를 열어 기업 80곳, 대학 39곳 등 모두 204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복수의 지자체가 힘을 합쳐 예컨대 '한방약초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연계협력 기반 조성', '차세대 마그네슘 제련 국산화를 통한 초경량 소재 부품소재 개발 사업' 등과 같은

특정 프로젝트를 정하고 여기에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참여시켜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경부는 올해 안에 이들 204개 선정 기관에 5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특성화 발전, 지역간 상생·협력 강화를 꾀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MUSICAL
Rock the Paper
록 더 리퍼

1888년 버린 그대 사랑이 있었다.

조기예매(8월31일까지) 10% 할인

18일(일) - 25일(금)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888년 버린 그대 사랑이 있었다. 1888년 버린 그대 사랑이 있었다. 1888년 버린 그대 사랑이 있었다.